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01.17	↓ 코스닥	864.71
	(-21.50)		(-1.47)
↑ 금리 (연이자율)	3.353	↑ 환율 (원/달러)	1376.00
	(+0.045)		(+10.70)



시험대 오른 서울 분양가... 강북도 국평이 12억 넘어

〈전용면적 84㎡〉

장위6구역 평균분양가 3507만원
2년 전 고분양 논란 때보다 2억 ↑

정비사업 공사비 부담 분양가 전가
업계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듯”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분양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동산 경기는 아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강북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줄줄이 12억원대를 넘어서면서다.

신축임을 감안해도 주변보다 비싼 시세에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지도 미지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정비사업 단지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하겠다는 분위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재개발조합은 최근 3.3㎡(평)당 평균 분양가를 3507만원으로 책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서울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위 6구역은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만큼 최종 분양가는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와 큰 차이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총 718가구다. 전용면적 84㎡는 10억4000만원에서 최고 12억1100만원선, 59㎡ 분양가는 8억2600만~9억4800만원선으로 전

해졌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라고 해도 20평대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하고, 12억원선을 넘어선 30평대 분양가는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주변 시세 대비로도 분양가가 높다. 지난 2022년 12월 분양한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 3.3㎡당 2834만원으로 분양했다. 국평의 최고 분양가가 10억230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으로 물량을 털어냈다. 오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입주한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꿈의숲 아이파크 등 인근 신축의 시세도 국평이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장위4구역도 지금은 입주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며 “장위6구역은 입지가 더 좋은만큼 물량이 천천히 소화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무리없이 분양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는 입주권이 지난 3월 최고 분양가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세가 이어



해외 순방길 오르는尹 대통령 부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지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

흥제3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조합원에게 공개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4250만원대로 국평이 1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잠정)이다. 지난 2021년 3월 126.14와 비교하면 22.7%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조규홍 장관 “엄연한 불법적 행위
비상진료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교수단체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집단 휴진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전일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과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집단 휴진 의지를 밝혔다.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3%로 집계됐다.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한 투쟁에 대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

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의대 교수단체도 집단 휴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12일 정기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해 심해 광구 재설정... 재정 부담 최소화”

산업부 “효과적인 투자유치 도모”
유망구조 위치·형태 감안 재설정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설정된 광구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스전 개발 특성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으나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게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산업부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비용절감과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시점, 매각지분율, 유치 방안 등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시기 등 단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 탐사 성공률 추정치 20%

와 관련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인 ‘가이나나’ 유전도 시추 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나나 유전을 예측한 아브레우 대표가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타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과 관련 최 차관은 “가망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인수합병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가 가망없고 없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홍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원구성·이화영·김성숙’ 민주당 맹폭 /사진 뉴스스
▲시민단체, ‘영일만 석유 시추 자료’ 정보공개 청구

▲정부, 개원의에도 ‘업무개시명령’ 방침
▲합참 “9일 살포 북 오물풍선, 310여 개 식별”



▲황우여,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에 “헌법에 맞지 않아”
▲이재명 ‘6·10 37주년’에 “국민 무시한 권력 오래 가지 못해” /사진 뉴스스

국내인구 4년간 줄어 5127만명...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

행안부, 4년전 5185만명 '정점' 이후 지난달까지 57.4만명 줄어 서울 거주민 973만명→937만명 유소년 인구 줄고 고령화는 가속



경기 구리지역의 한 '중장년 일자리 게시판' 앞에 구직자 등 시민들이 모여 있다. 올해 전국 여성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 정점을 찍은 뒤 4년 반 동안 매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거주민 수는 512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8월(5126만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인구는 2014년 말 5132만 명에서 2015년 말 5152만 명, 2016년 말 5169만 명, 2017년 말 5177만 명, 2018년 말 5182만 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 갔다. 이후 2019년 11월(5185만 명)까지 계속 역대 최다를 경신한 후 그해 12월 감소

로 돌아섰다.

역사상 정점인 5185만 명에 달한 이래로 올해 5월까지 4년6개월간 57만 4000명(-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도시 거주민 수는 서울이

973만 명에서 937만 명으로, 부산이 341만 명에서 328만 명으로 감소했다.

8개 주요 시 가운데 대구(244만 명→236만 명)와 대전(147만 명→144만 명), 광주(145만 명→141만 명), 울산

(114만 명→110만 명)도 동반 내리막 길을 걸었다. 9개 도 중에는 경북(-12만 명)과 전남(-7만 명)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4년6개월간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령화는 심화했다. 전국 만 9세 이하 인구가 2019년 11월 말 417만 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324만 명으로 줄었다. 10대(497만 명→463만 명)와 20대(681만 명→609만 명)도 꺾을 같이했다.

반면, 60대(626만 명→772만 명)를 비롯해 70대(359만 명→404만 명), 80대(162만 명→207만 명) 등은 크게 늘어났다.

60대 인구는 40대 인구를 곧 따라잡는다. 여성의 경우, 이미 60대(올해 5월 392만 명)가 40대(384만 명)보다 많다. 여성은 또 80대(131만 명)가 9세 이하(158만 명)와 맞먹는다.

평균연령 45세를 넘긴 지역도 많다.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의 거주민 평균나이가 45살 이상이다. 전국 평균은 2019년 11월 42.6세에서 올해 5월 45.0세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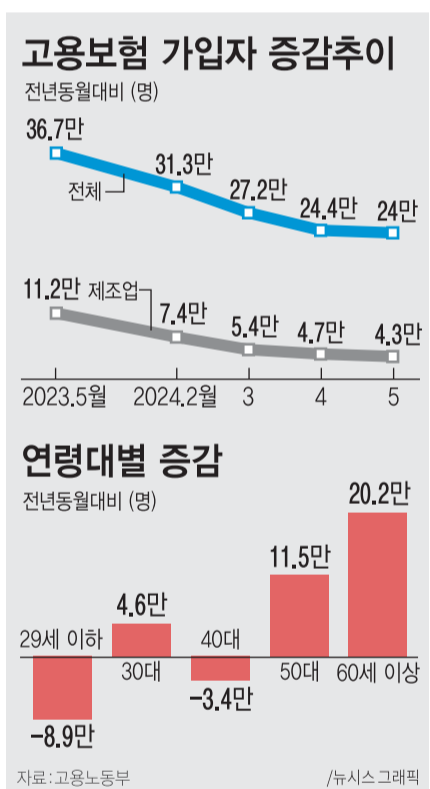
통계청은 98년 뒤인 오는 2122년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1936만 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수 있다고 봤다. 저출산 여파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열린 한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어떻게 해야 외국인 유입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1개월째 감소세

고용부, 지난달 상시가입자 1539만명 전년 대비 24만명, 1.6% 증가 그쳐 20대 가입자 3.6%, 40대 1.0% 줄고 60세 이상 8.5%, 50대 3.5%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대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영향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로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주로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 영향이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8만9000명(-3.6%), 4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3만4000명(-1.0%) 줄었다. 20대는 21개월째, 40대는 7개월째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명), 정보통신업(-1.8만명), 보건복지(-1.1만명) 위주로, 40대는 건설업(-1.4만명), 도소매(-7000명), 제조업(-5000명), 부동산업

(-5000명) 위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한다.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전년 대비 20만2000명(8.5%), 11만5000명(3.5%)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16.8%로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15.5%)을 넘어

선 상태다.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작년 10월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령자 증가와 20대, 40대 감소가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인구감소 폭과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며 "40대가 감소하는 업종이 건설, 도소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라 산업 전체의 총량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분 중 내국인은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1.1%), 20만명(+1.9%)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8000명 감소해 10개월째 내림세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8000명 감소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천경기 과장은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엑트지오사 의뢰, 경쟁입찰로 공정 선정”

>> 1면 '동해 심해 광구...'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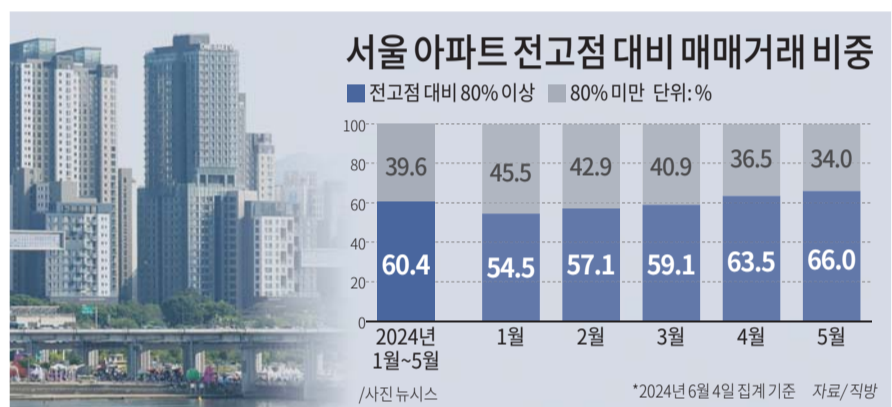
엑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선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엑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비토르 아브레우 엑트지오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4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나, 최 차관은

이날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개"라고 정정했다. 또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리스크"라고 한데 대해선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3번(주작, 흥계, 방어)의 심해 시추에서 '유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나, 통역을 거치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엑트지오가 체납한 세금을 석유공사

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은 "엑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인데, 석유공사가 엑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23년 5월부터"라고 말했다.

또 엑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할 당시 엑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는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영업을 했고 여러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10채 중 6채 작년 고점 대비 가격 80% 회복

직방, 국토부 실거래가 매매 분석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60%가 지난해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 1~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1만4810건 중 전년 고점 대비 80% 이상 매매 비중은 60.5%(8939건)로 집계됐다. 매매 중 36.6%는 지난해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9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다.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거래도 9.3%를 차지하며 거래량 회복과 함께 거래가격도 전고점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전고점 대비 70% 이상~80% 미만의 가격이 36.7%로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달 80% 이상~90% 미만 거래 비중이 39.8%로 높아졌다.

지자체별 거래가격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종로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의 20% 이상은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80% 이상 가격이 회복한 거래가 3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전고점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가 열

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서초구(90.2%),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성동구(75%), 중구(73.2%), 양천구(72.9%), 영등포구(72.9%), 송파구(71.8%), 동작구(70.5%), 광진구(70.4%)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다. 새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선호 영향에 따라 매매 가격이 종전 가격을 경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금천구(48.7%) ▲구로구(49.7%)는 전고점 대비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작았다.

직방은 올해 저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연일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도 실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서울 아파트는 공급 축소 전망에 따라 희소 가치가 높은 단지에 수요가 쏠리고 있어 당분간 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라면서도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방의 미분양 증가, 경기 불안 등의 주택 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소도 상존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보합 흐름이 유지되며 입지별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주중 FOMC·CPI 동시 발표... “환율, 1400원까지 고려해야”

고용지표 시장 예상치 웃돌아
금융권, 연준 금리 시그널 주목
일각선 강달러 지속 전망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7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시장에서 오는 12일 예정돼 있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5월 CPI(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강달러 현상과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점도표 관심집중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 비제도(Fed)의 FOM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발표된다.

CME(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연준이 이번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할 가능성을 99.4%로 집계했다. 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동결해 왔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FOMC 회의 이후 공개될 점도표에 모아지고 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연방기준금리 중앙값을 연 4.5~4.75%로 제시해 연내 금리를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지난해 12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선방하고 고용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 횡수를 1~2회 인하로 선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OMC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인 12일에는 미국의 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5월 CPI가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해 지난 4월(3.3%)과 비슷할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3.5% 상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1.50포인트(0.79%) 내린 2701.17에 장을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7포인트(0.17%) 하락한 864.71,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0원 오른 1376.0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승해 전월과 같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CPI지수는 연준이 설정한 목표치(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7월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2~3개월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연말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우리의 장기 연간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해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식·외환시장 불안정 심화

CPI와 FOMC 결과를 앞두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도표에서 나타날 금리인하 전망 조정 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인 오전 9시 15분 전 거래일 대비 16.1원 오른 1381.4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31일(1384.5원) 이후 5거래일 만에 1380원대로 재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CPI가 둔화되면서 1345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104.9포인트로 전일 대비 0.8포인트 올라 단번에 이달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45포인트(0.79%) 하락한 2701.22,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포인트(0.17%) 하락한 864.71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 5월 CPI 전월 수준 전망 7월 금리인하 불가 전망 우세 “코스피 예상범위 2580~2700”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일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달보다 27만 2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4월 증가 폭(16만 5000개)과 시장 예상치 19만개를 크게 웃돈 수치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55%로 점쳤는데, 이는 고용 보고서 이전의 75%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7월 금리 인하 확

률은 9%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화 약세를 비롯해 국내 증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에 따라 환율 상승 폭도 커질 수 있다.

먼저 미국의 통화정책 탓에 미 달러화 강세보다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1400원까지 열려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까지 상승(원화 가치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당길 만큼 미국 지표가 둔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달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FOMC 회의 후 공개될 점도표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한다면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기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스피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상 범위를 2580~2700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정부, 근로자 생계비 등 2800억 규모 재원 확충

올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늘어나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계비 용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훈련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생활자금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용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용자 지원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용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용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훈련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8만 8000명 규모 지원대상에 4만 1000명을 추가하고, 총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22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

과반 의석 무기 휘두르는 野 vs 대안없이 역풍만 기대하는 與

여야, 상임위 배분 놓고 평행선 민주, 18개 중 11개 상임위 제출 위원식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소집" 추경호 "건제·균형으로 중립 기대"



위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틈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와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

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눌러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받고 있

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향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놔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용량 더 좋아요”... 고물가 시대에도 ‘창고형 할인점’ 상승세

가격 거품 걷어내고 가성비 내세워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출 8.6% 늘어 롯데마트 맥스, 지난해 대비 10% ↑

#직장인 안 모(38)씨는 “창고형 매장은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투박한 데에 오는 매력이 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많다. 우리집은 2인 가족이라 대용량을 소분해 부모님과 나눈다. 소분돼 있는 상품보다 3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에 자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더스 동탄점에 마련된 티 스탠드 매장. /이마트

국내 창고형 할인점이 고물가 시대를 맞아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물가가 2년 넘게 고물가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이어도 가성비가 좋다면 지인과 나누던가 소분해 쟁여놓는 등 저마다 방식은 다르게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은 올해 1~4월 매출이 8.6% 늘었다. 전반적인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마트(-1.0%)와 노브랜드 전문점(-7.8%) 매출 추이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레이더스의 점포당 매출액도 533억원으로 이마트(296억원)의 2배에 가깝다. 현재 트레이더스 매장은 22개, 이마트는 133개에 비해 점포수가 적은 상황에

서 거둔 실적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축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다. 직접 소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소분 상태의 제품에 비해서는 최대 3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냉동 과일·채소 매출도 각각 38%, 30% 올랐다. 트레이더스 내 푸드코트인 'T카페'의 1~5월 매출도 20.5% 증가하며 호황을 누렸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최근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까지 간편하게 해결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6곳에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맥스'도 올해 1~5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오른 수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분기 기준 롯데마트 국내 할인점(-1.3%), 롯데슈퍼(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바나나, 오렌지 등의 수입산 과일(40%), 수입 돼지고기(25%)가 특히 눈에 띄게 성장했고, 맥스 전용 자체 브랜드(PB) 우유(20%), 가공식품 등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10~15% 저렴하다. 이에 많은 고객들의 발길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레이더스 측은 “오는 2026년까지 2

개 매장 이상을 출점할 계획”이라며 “백스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창고형 매장이 일반마트보다 낮은 가격에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상품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상품 포장기 아닌 박스 단위로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가장 필요한 상품만 대량 구매해 가격 거품을 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의 약 30%에서 많으면 50% 낮은 수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평균 10~15%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2019년 6조8644억원 수준이던 한국의 창고형 할인점 시장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 9조9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14년간 사회적 업무 일자리 7% ↑... “AI시대, 소통·협동 중요”

한은, BOK이슈노트 보고서 발간 사회적 능력따라 임금보상 높아

지난 14년 간(2008년~2022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7%포인트(p) 증가한 반면 전문 기술인 수학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5.3%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면서 수학적 업무보다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소통·협동하는 사회적 업무 능력이 중요해진 탓이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서 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사회적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노동투입은 9.6% 상승했다. 수학적 업무가 6.8%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가 1.1%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노동시장의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적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 **소통·협동 필요한 일자리 7%p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업무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14년간 총 7%p 늘었다. 사회적 업무 강도와 함께 수학적 기술 강도가 높은 경영관리자, 대학교수, 약사, 간호사 등은 4.7%p 증가했다. 사회적 업무 강도는 높았지만 수학적 기술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 작가 등은 2.3%p 늘었다. 수학적 기술 강도만 높은 회계 및 경리,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등은 5.3%p 늘었다.

반면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등의 일자리는 7.6%p 줄었다.

오 팀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쓰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능력에 따라 임금보상도 커져**
아울러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협동을 잘하는 이들도 임금보상이 이뤄졌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은 경우 임금은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추가해 학력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능력에 따른 임금보상은 존재했다. 일을 잘하는 실력(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타인과 화합하는 실력 또한 갖추는 것이 임금상승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임금보상이 더욱 증가했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은 2007~2015년 4.4% 올랐고, 2016~2020년에는 1.5%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115@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與, 전대서 '민심 30%' 반영... 단일지도체제는 유지 가닥

당헌·당규특위, 오늘 의견 최종정리
전대 규정, 민심30%·당심70% 변경
황우여 비대위의 '2인 지도체제'
친한계·친윤계 반대로 무산될 듯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30%·당심(당원투표) 70%'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당헌·당규특위)는 10일 당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규정,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 30%·당심 70%'으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변경해야 한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소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11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2인 지도체제' (승계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대대표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석 최고위

원이 당대표 권위시 대표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체제와는 다르다. 황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지도부가 6번 바뀐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같은 제도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는 당원주자가 없어 수석 최고위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승계형 지도체제를 두고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보완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 위원장은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며 "부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다툼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특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개정과 지도체제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25일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중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일단 예상되는 당권주자로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내외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후 당선자·낙선자 등과 만남을 갖고,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리는 등 '뭉클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환)' 분위기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대선 패배 몇 달 후 이재명 당시 전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섰을 당시에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당대표로 대선까지 직행?... 野 당헌 개정안 의결

당대표 등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서
사유 있을 시 시한 변동 예외조항 부의
추 대표 연임·영향력 강화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

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란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당무위에

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러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엔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나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시

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동해 석유·아프리카 외교에도 尹 지지율 31.5%

전주비 0.9%포인트 올라
9주째 30% 초반 박스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31.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9주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6월1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포인트 높아져 31.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8%p 낮아진 65.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9주째 30% 초반 박스권에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4월 2주 차에 32.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로 떨어진 이후 6월 1주 차까지도 중반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30.5%로 마감한 후, 이달 4일에는 32.3%, 5일엔 32.4%, 7일엔 3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했음에도 지지

율 반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주 우드사이드, S&P 등의 광구 장애성 논란', '액티오 신퇴성 의혹' 등으로 깜짝 발표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세션을 주재하는 등 활발한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펼쳤음에도, 지지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5주차 조사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35.6%, 국민의힘은 1.4%포인트 높아진 34.5%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尹, 중앙일보 순방 시작... 김건희 여사 동행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첫 순방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민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11~13일)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국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올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순방에 동행하

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자켓과 치마 정장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었다.

공방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규 외교부 1차관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 광물, 천연자원, 원전 등의 협력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외교 전략이다. /서예진 기자



Hana Bank Invitational

한일 스타들의
불꽃튀는 대결!



함정우
Jeongwoo HAM



한승수
Seungsu HAN



히라타 켄세이
Kensei HIRATA



박상현
Sanghyun PARK



이나모리 유키
Yuki INAMORI



양지호
Jiho YANG



히가 카즈키
Kazuki HIGA

2024.6.13(목) - 6.16(일)

남춘천 컨트리클럽



방송 SBS Golf 2

장소 남춘천컨트리클럽 Nam Chun Cheon C.C.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심사과정 100% 자동화’… 보험업계, AI 도입 불 붙었다

업무효율성, 편의성 제고 두드러지
롯데손보, 작년 업계 첫 AUS 가동
운전자보험 인수거절률 0% 기록
메트라이프, AI OCR로 5분 처리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AI리더 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토이미지

인공지능(AI) 리더 자리를 향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AI를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함께 고객 편의성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체 AI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보험 심사 과정을 100%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번 시스템을 바탕으로 AI리더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부터 가동한 '장기 인공지능 보험인수 시스템(AUS)'은 가입자의 특성과 질병력을 바탕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자가 설명하기 어려운 '대안 상품 안내'와 '상품 추천 기능'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해 조만간 간편보험 심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AUS를 통해 100% 자동심사가 진행 중인 운전자보험의 인수거절률은 지난해 8월 이후 0%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AUS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간편보험의 심사도 완전 자동화하고 인수정책 최적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는 보다 복잡한 계약과 인수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같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

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4월 인공지능 기반 광학식 문자 인식 시스템(AI OCR)을 도입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빠르게 심사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입원을 수반하지 않는 간단한 보험금의 경우 5분 이내로 지급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의 자연어까지 인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금자동지급 범위를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AI 명함 서비스를 도입했다. AI 명함은 사진 1장과 10초 분량의 음성만으로 보험 설계사와 동일한 모습의 가상인간을 구현해 최대 1분 분량의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은 AI 명함 서비스를 KB손해보험 골드멤버 약 300명을 대

으로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이후 KB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에 이어 생보업계 최초 AI 명함 서비스 도입 타이틀은 ABL생명이 차지했다.

ABL생명은 지난 9일 생보업계 최초로 AI 명함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AI 명함 서비스를 고객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CRM(고객관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BL생명은 영업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전속 FC(재무컨설턴트), 육성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AI 명함을 제공한다. AI 명함에는 ▲개인 PR ▲정기 안부 인사 ▲계약 고객관리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FC들의 전문성을 갖춘 모습과 목소리를 고객과의 만남 전에 쉽게 전달이 가능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친숙한 고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사 디지털 전환 및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삼성생명 전이암직접치료보장 등 필요한 특약 선택 가입

삼성생명이 전이암직접치료보장 특약을 탑재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납입 후 '플러스보장플랜'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가입시점에 2가지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납입 완료 후 보장이 게시되는 구조다.

'플러스사망보장플랜'은 플랜보험 가입금액 만큼 담보한다. 이어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 ▲입원 ▲간병 ▲수술 ▲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이암직접치료보장특약, 전이암항암약물치료특약 등 신규 개발한 특약도 탑재했다. 기존 원발암과 전이암 등 고액치료비암의 직접치료에 관한 보장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생식기암·조기폐경 등 女 생애주기 맞춤 보장

신한라이프가 여성의 생애주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의 삶 지원하는 특화 보험

신한라이프는 10일 '신한건강보장보험 원(ONE)더우먼'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임신과 출산 등을 포함해 갱년기 질병까지 보장하는 여성특화 건강보험이다. 호르몬 변화나 가족력에 따라 질병 위험이 다르다는 점을 착안해 꼭 필요한 보장만 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성암 진단특약'을 통해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등 생식기암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어 조기폐경진단 및 급여 골밀도검사지원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으로 탑재했다.

여성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도 마련했다. ▲난소기능 검사 할인 ▲난자동결 시술 우대 ▲이른둥이 방문간호 컨설팅 등 치료 후 회복을 돕는 케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히 질병과 사망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틀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여성의 삶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여성특화 보험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저축은행 4%대 금리 실종… 하반기에도 내림세 전망

전국 79곳 정기예금 평균 年 3.67%
지난해 동기 상단 대비 0.51%p 하락
영업환경 악화로 조달비용 절감나서



저축은행 예금금리 상단(연 4%)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1

저축은행 예금금리 상단 연 4%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영효율화에서 나선 저축은행이 몸집을 줄이고 이자비용을 잇달아 내린 영향이다. 연내 업황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금리 예금 '막차'라는 분석도 등장한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67%다. 연초(연 3.96%) 대비 0.29%포인트(p) 하락했다. 2분기를 시작으로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춘 것이다. 지난해 동기(연 4.00%)와 비교하면 0.33%p 떨어졌다. 예금금리 상단만 놓고 보면 연간 0.51%p 하락했다.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모습을 감췄다. 지난 9일 기준 전국에서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곳은 조은저축은행이 유일하다. 반면 지난 1월 전국 저축은행권이 해당 금리 구간에서 출시한 정기예금 상품은 194개다. 이제는 연 3%대 예금상품이 대부분이다.

은행권과 비교해도 매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같은날 기준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단은 연 3.9%다. 저축은행 상단과 불과 0.1%p 차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은행권 대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만큼 예금상품에 1~2%p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사의 채급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1금융권의 금리가 2금융권을 역전했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은행을 뒤로하고 저축은행을 찾는 유일한 이유는 고금리다"라며 "0.1%p 차이이면 은행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반기에도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내

림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을 전면 중단한 상황인 데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리테일(소매금융) 수요 확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가 지속하면서다. 대출 취급이 줄어든 만큼 조달비용 절감에 나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3조7449억원이다. 한달새 183억원 증가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반년간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이 매달 수조원대 낙폭을 기록했던 만큼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기간 여신잔액은 101조3777억원으로 14개월째 감소세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우리銀, '2차 학자금대출' 2만명 캐시백

우리은행이 2차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한국장학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이다. 취업난, 고물

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히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학자금대출을 보유 중인 청년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총 240억원을 되돌려준다. 지난 3월 한 달

간 1차 모집을 통해 우리은행에 거래가 있는 4만명과 기존 거래가 없는 2만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우리은행 거래가 없는 2만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오는 7월 31일까지 우리WON뱅킹과 한국장학재단 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차 모집일인 3월 25일 이전에 우리은행 입출금계

좌가 없었던 고객이 대상이다. 모집 마감일인 오는 7월 31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원금 보유 ▲연체 발생 ▲타 금융사 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개별 캐시백 금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석화업계, 日 ‘위기극복’ 전략 주목 고부가가치 제품 등 협력범위 확대

中 공급과잉 등 업황부진 대응
日 석화업계 공동 사업전략 구성
“서로의 강점 배우고 교류할 것”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일본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현상을 맞아 그동안 대중국 수출에 의존적이었던 한국의 석화 산업에 ‘탈중국’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 업황 부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LG화학 과 한화솔루션은 석화 부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약 1조원으로 집계됐다.

석화 업계의 부진 요인으로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 꼽힌다. 이에 중국의 석화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31일 이틀간 ‘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는 일본과 대만·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인도 등 7개국 석화협회가 주축으로 참석했다.

특히 국내 업계는 일본 석화업계와

공동으로 사업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학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겸 LG화학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일본을 참고할 것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석화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분석한다. 앞서 일본 석화 산업은 중동발 공급 과잉에 고난을 겪었던 경험 있다.

지난 1950년대에 일본 석화 산업은 내수를 중심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다 2000년대 중동이 석화 산업에 뛰어들면서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석화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를 중유에서 추출하는 만큼 산유국인 중동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범용 부문을 통·폐합해 미쓰비시화학, 미쓰이화학 등 소수 기업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재편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으

로 수출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일본 업계의 아시아 수출 비중은 지난 2010년 3% 수준에서 지난 2023년 18%까지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헬스케어, 전자소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실시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경영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기업들도 과거 일본과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장악한 범용 부문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성하는 것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화업계와 일본 석화업계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두 나라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도입하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오션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 진수되고 있다.

한화오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진수

15MW급 발전기 5기 적재 가능

한화오션이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을 진수하며 본격적인 해상풍력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다.

1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번에 진수한 대형 WTIV는 지난 2021년 카탈라로부터 수주했다. 길이 148m 폭 56m 규모 설비로,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다. 수심 65m까지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한화오션은 지금까지 WTIV 2척을

인도했고 현재 WTIV 2척을 건조 중이다. 이번에 진수한 WTIV가 성공적으로 인도되면 급증하는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것으로 한화오션은 기대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친환경 해양 사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실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번에 진수한 대형 WTIV를 성공적으로 인도해 WTIV 시장 1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세계 최고 전압 ‘HVDC케이블’ 양산

525kV 직류송전... 테넨트 공급
獨-네덜란드 전력망 연계사업 사용

LS전선이 세계 최고 전압 HVDC 케이블 양산에 나선다.

LS전선은 525kV(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존하는 DC 케이블 중 최고 전압 제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업체만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산된 제품은 테넨트(TenneT)사의 2GW(기가와트) 규모의 송전망 사업 중 ‘발윈(BalWin)4’와 ‘란윈(LanWin)1’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북해 해상풍력단지과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5월 테넨트와 2조원대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케이블업체의 단일 수주금



최근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사업장에서 열린 ‘525kV HVDC 케이블 양산 기념행사’에서 LS전선과 테넨트(TenneT)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액 중 최대 규모다.

HVDC는 AC(교류)에 비해 대용량의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유럽에서는 송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해상풍력,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에 주로 HVDC 케이블을 사용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최근 유럽연합(E

U)가 해상풍력 공급 목표치를 2030년 60GW에서 2050년 300GW로 상향한 만큼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최근 미국 공장 건설, LS마린솔루션의 설비 투자, LS에코에너지의 유럽, 아시아 사업 추진 등 글로벌 해외케이블 사업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기아, ‘더 2024 모닝’ 출시... GT라인 추가

GT라인, 전용 디자인 적용

기아가 고객편의 사양을 높인 ‘더 2024 모닝’을 10일 출시했다.

더 2024 모닝은 연신변경 모델로 GT 라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규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더 2024 모닝의 GT라인은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기본 모델보다 한층 더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외관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인테이크 그릴을 확장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전면가공 16인치 휠, 블랙 하이그로시 사이드실 폴딩, 디퓨저가 적용된 후면 범퍼, GT 라인 전용 엠블럼 등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여기에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전면부 방향지시등, 센터 포지셔닝램프에 모두 LED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실내는 D컷 스티어링 휠과 메탈 페달을 적용해 GT 라인만의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했다.

특히 더 2024 모닝 시그니처 트림부터 국내 내연기관 경차 최초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와 오토 홀드를



‘더 2024 모닝’. (위)전측면 (아래)실내 /기아

기본으로 탑재했다.

차량 판매 가격은 1.0 가솔린 ▲트렌디 1325만원 ▲프레스티지 1500만원 ▲시그니처 1725만원 ▲GT 라인 1820만원이며, 1.0 가솔린 밴 ▲트렌디 1300만원 ▲프레스티지 137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韓 AI 성숙도, 태평양 지역 평균 이상”

인텔, 호주, 일본과 함께 3단계 평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성숙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싱가포르였다.

인텔은 10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아태 지역 8개국의 AI 성숙도를 조사한 ‘2024년 IDC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성숙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 AI 지출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9%씩 성장해 2027년에는 907억 달러(약 125조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AI 성숙도는 기업, 정부, 사회경제적 준비 상태 요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평가됐다.

한국은 호주, 일본과 함께 ‘AI 혁신’ 단계인 3단계로 분류됐다. 잘 구축된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전략을 통해 AI 이니셔티브를 잘 계획하고 관리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과 함께 강력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큰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봤다. 전체 AI 지출은 2023년부터 연평균 21.6% 증가해 2027년 4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높은 ‘AI 리더’ 4단계는 싱가포르로, AI 우선 및 데이터 지원 문화가 존재하고 AI를 확장해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도, 대만은 ‘AI 실무’ 단계인 2단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AI 탐색’ 1단계로 평가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레노버,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출시

씽크패드 P14s 5세대 등 5종

한국레노버가 10일 AI를 지원하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인텔 프로세서 탑재한 ▲씽크패드 P17세대 ▲씽크패드 P16v i2세대 ▲씽크패드 P14s i5세대 ▲씽크패드 P16s i3세대와 AMD 프로세서가 장착된 ▲씽크패드 P

14s 5세대 등 총 5종이다.

씽크패드 P17세대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 세계 최초로 LPDDR5x LP CAMM2 메모리를 탑재했다. LPCAMM2는 레노버와 협업으로 미국 마이크로닉스 선보인,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PC용 모듈형 메모리 솔루션이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5종은 모두 ISV(독립소프트웨어개발업체) 인증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

“이런 기능 있어?”… 삼성 vs 애플, AI스마트폰 경쟁 본격화

삼성, 내달 AI 탑재 폴더블폰 공개
美 SNS에 아이폰 없는 기능 강조
오늘 새벽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통화녹음·요약서비스 공개 주목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자체 AI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어 양자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삼성전자와 구글 등과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다만 애플의 AI 스마트폰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라는 점과 시리의 업그레이드 등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각 11일 새벽 2시)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할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AI를 탑재하고 한층 평평해진 갤럭시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월 실시간 통번역, AI 기반 검색 기능 등이 포함된 ‘갤럭시 AI’와 이를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의 앞선 기술력을 공개함과 동시에 리더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의 첫 AI 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애플이 공개할 AI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모바일US)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갤럭시S24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아이폰에 없는 기능을 강조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했다.

삼성전자가 게시한 한 영상에는 ‘아이폰’이라는 문구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dare you to zoom into the dark without a galaxy(갤럭시 없이 어둠



지난해 오후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진열된 아이폰 15 시리즈. /뉴시스

을 확대하려 하다니)’라는 문구가 채워진다. 이후 갤럭시S24를 든 배우가 어두운 환경에서 나이트그래피를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너의 아이폰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견제에 나선 것은 애플의 자체 AI 스마트폰 공개 영향이 크다. 애플은 이날 WWDC24를 개최하고 iOS 18, 아이패드OS 18 등 새로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대거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알려진 AI 기능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에 AI 챗봇을 결합해 한층 더 진화시키거나, 아이폰에서도 AI 지능형 검색, AI 사진 편집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WWDC24에서 AI 기능이 담긴 iOS 18이 발표된 이후 애플의 첫 AI 폰으로 하반기 아이폰16 시리즈가 출시된다.

다만 애플이 AI 기능을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과 같은 기능보다 출시된지 12년이 넘는 음성 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기능을 아이폰이나 맥에서 이용하려면 M1 칩 이상이 탑재된 기기가 필요하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나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시리즈로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1000달러(약 130만원)를 훌쩍 넘는 휴대폰 가격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애플의 통화녹음 서비스 여부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모바일USA)이 10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사과로 해보세요(Do more with an apple than Apple's ever done)’ 광고 영상. /삼성전자 미국법인 인스타그램

가 관건이다. 최근 애플이 iOS 18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만약 통화 녹음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스마트폰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애플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드에 따르면 메모 앱을 통해 오디오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부터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요약 기능 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 역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별 음성 메모·녹음 열기부터 오디오 콘텐츠별 특정 녹음 삭제, 음성 메모 녹음 검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온디바이스 AI에 ‘익시젠’ 더한다

NPU 개발사 딥엑스와 맞손
모빌리티·로봇·가전 등에 활용

보를 처리하고 추론하는데 특화된 프로세서다.

LG유플러스의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익시젠(ixi-GEN)이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 딥엑스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미래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딥엑스는 로봇·가전·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NPU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와 시냅스로 연결된 인간의 뇌처럼 정

NPU는 대량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추론하기 때문에 AI 연산처리 작업에 최적화됐다. 최근 AI 기술에 많이 사용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반도체 대비 추론영역에 있어 효율은 높으면서 낮은 전력을 사용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딥엑스가 개발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익시젠을 접목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솔루션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가전,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KG 모빌리티 “재연시험, 사실과 다르다”

강릉 급발진 사고 재연시험 반박

강릉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SUV를 주행하던 중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진 사건이다. 원고인 A 씨 측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M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인 티볼리 제조사 KG 모빌리티(KGM)가 유가족(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연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KGM은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성운 기자 ysw@

“생성형 AI로 의약품 이상사례 신속 공유”

SK C&C 일성아이에스와 협력
유관기관 제출양식 기반 보고서 작성

국내 병원에서 의약품 이상 사례가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해진다.

SK C&C는 10일 국내 제약회사인 일성아이에스(주)와 ‘제약 분야 AI DX(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성아이에스는 1954년 설립돼 국내 최초로 항생제를 도입한 제약회사다. 이번 AIDX 파트너십은 일성아이에스 제약 분야 전반에 생성형 AI·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 C&C 구성원들이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활용한 ‘생성형 AI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데모 버전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SK C&C

양사는 먼저 SK C&C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활용해 보건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이상 사례를 보고하기 위

한 ‘생성형 AI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구현하기로 했다.

국내 약물 감시체계상 제약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수십 개 이상에 달하는 제약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솔루어는 규제 당국 및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방식으로 수집된 각종 이상 사례를 빠르게 정리하고 작성해 보고한다.

양사는 향후 다양한 약물 감시 업무에도 솔루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CDMA 상용화로 ‘ICT 명예의 전당’

ICT 노벨상 IEEE 마일스톤 선정

1996년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CDM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SKT는 CDMA 사례로 국내 기업 최초로 수상 기업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SKT는 이날 IEEE 마일스톤 선정 기업에 부여되는 기념 현판 제막 행사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개최했다.

SK텔레콤이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상용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ICT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CDMA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기술이다.

SK텔레콤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지난

SKT는 CDMA 상용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했던 당시의 열정을 밑바탕 삼아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전화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소프트업·케이뱅크 IPO 출격 대기 대어급 진출에 하반기 기대감 ‘쑥’

이달 13개사 공모청약 진행
소프트업, 내달 공모주 일반청약
예상 시가총액 최대 3조4816억
케이뱅크, 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

HD현대마린솔루션, 에이피알 등
대어급의 기업공개(IPO) 흥행 속에 하
반기에도 ‘조 단위’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에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13개사가 일반투자자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지난달 일반 청약 받은 기업이 두
곳(아이씨케이·노브랜드)에 불과했
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

또한 대어급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다. 게임 개발업체 소프트업
은 이달 27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다음 달 2
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
행한다.

예상 시가총액은 2조7272억~3조
4815억원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
는 4만7000~6만원이며,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 발행한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소프트업은
2022년 게임 ‘승리의 여신:니케’를 출

시하며 지난해 전 세계 서브컬처 모바
일 게임사 5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686억원에
영업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해 1분기에도 매출 374억원, 영업이익
259억원으로 약 70%에 달하는 영업이
익률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업의 수요예
측에서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희망
가격 범위 이상의 공모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 상단으
로 상장될 경우 크래프톤, 넷마블, 엔
씨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상위 4개
기업사로 자리 잡게 된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주요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의 현재까지
누적 총매출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LIVE 2D 등 그래픽 기술도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모가 역시 국내
및 글로벌 게임주 대비 저렴하며, 상장
직후 유통 물량도 18%로 낮은 편이다”
고 설명했다.

하반기 IPO 최대어가 될 것으로 예
상되는 케이뱅크는 이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
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1월 I
PO 추진을 발표하고 그해 9월 상장예
비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증시 부진으

로 IPO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해 2월 상장을 포기한 바 있다.

연초 IPO 재추진 의사를 밝힌 케이
뱅크는 최근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으
로 판단하고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
사로 선정했다.

케이뱅크가 지난 1분기 순이익 507
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IPO는 순조롭
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
크는 자기자본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
로 예상하며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
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했다.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줄줄이
IPO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제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공모가 상단 아
니면 상단 초과를 기록한 데다 HD 현
대마린솔루션, 에이피알 등 공모 규모
가 큰 회사들이 IPO에 성공적으로 안
착했다”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은 IPO 시장이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
가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 올해 하
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
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김원규 LS증권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이 5일 신규 사명 및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S증권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 만드는 LS증권”

신규 사명·비전 선포식 행사

LS증권은 지난 5일 신규 사명 및 비
전 선포식 ‘렛츠 스타트, 메이크 투모로
우’ (Let’s Start, Make Tomorrow) 행
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3층 그
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LS증권 전 임직원 550여 명이 참석했
다. 행사는 구자용 E1 회장, 정은보 한
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원규 LS증권 사장과 지난해 우수사
원들이 함께 LS증권의 CI(Corporation
Identity) 로고를 선포하고, 신입사원
들에게 LS증권 신규 배지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김원규 사장의
프리젠테이션으로 LS증권의 새로운 비
전과 미션, 핵심가치 등이 소개됐다. 신
규 거래시스템 브랜드 투혼(TUHON)
에 대한 소개 영상도 공개됐다.

새 비전은 LS증권으로 사명을 변경
하며 임직원의 마인드셋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고자 수
립됐다. 비전은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LS증권(Let’s Sta
rt, Make Tomorrow)’, 미션은 ‘우리
는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고의 금융투자
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이다. 핵심 가치는 Profes
sional(탁월한 전문성), Leading(변화
선도), Understanding(존중과 시너
지), Shared growth(동반 성장) 4가
지, 약칭 ‘PLUS’로 설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비전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LS그룹의 일원으로서 새
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1999년 이
트레이드증권으로 시작하여 2015년 이
베스트투자증권으로 진화한 25년간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
했다.

/원관희 기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금감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이달 중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
템(NSDS)’ 구축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포함해 공매
도 전반의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
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
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계획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업
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
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
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장 등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질의에 답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
으로 여겨지는 NSDS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추진 경과를 발
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다가 다
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
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개발기
간을 단축해 2025년 3월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
했다. 또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이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방
침이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
부장은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질문
에 “현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세
부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으며, 행
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
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N
SDS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
산시스템 베타 운영 검토, 공매도 관련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널 ‘박동희TV’를 운영 중인 박동
희 금융 크리에이터는 “금융사들의 자
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
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제도가 시행돼 기
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을 흐르는 일
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처
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회사에 대한 제
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은 “상위 10개 종목 등 제한적으로 거래
를 허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을
더 파악하고, 시스템을 베타 버전 기간
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보면 향후 발생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복현 원장은 “개인·기
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
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
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본시
장 현안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세상 변화 이끄는 테크기업 투자 추천”

한투운용 ‘ACE 빅테크 간담회’

“기술주가 지배하는 시대로 변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집중 ETF
해당 시리즈 총 4종… 오늘 신규 상장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존
재감이 확대되면서 투자 흐름도 빅테
크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
용도 이를 주목해 ‘ACE 빅테크 밸류
체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
리즈를 내놓고,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열린
‘ACE 빅테크 간담회’에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세
상은 기술주가 지배하는 시대로 변화
의 길을 걷게 됐다”며 “한국투자신탁운
용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테크
기업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강조
했다.

특히 테크기업 중에서도 ‘애플’, ‘엔
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해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선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돈은 빅테크로 흐
른다’의 저자이자 그래비티자산운용
대표인 아담 시셀이 맡았다.

아담 시셀 대표는 “기술주에 돈이 있
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열린 ‘ACE 빅테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복리효과
를 믿고 투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1990년대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테크 기업은 BM과 일본전기
주식회사(NEC) 2곳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
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 등 7개 기업이 이름을 올
렸다는 부연이다.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3위 역시
테크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빅테크 기업들의 승자
독식 구조와 브랜드 가치, 플랫폼 등에
기반해 경제적 해자를 누린다”며 “모든

기술주가 아닌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를 축적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라고 덧붙
였다.

두 번째로는 김택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택진 소장이 “생성형 인공
지능(AI) 산업이 발전하며 테크 기업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A
I 산업은 상상을 뛰어넘는 자본력을 기
반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마지막으로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
운용ETF컨설팅담당이사서 ‘ACE 빅
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에 대해 소
개했다.

김 담당은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매그
니피센트7으로 통칭되는 빅테크 상위
7개 기업의 영향력은 기술혁신을 거치
며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산업을 지
배하는 빅테크 기업과 밸류체인 기업
에 투자하는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
티브 ETF 시리즈 4종을 선보이게 됐
다”고 전했다.

해당 ETF 시리즈는 ▲ACE 구글밸
류체인액티브 ETF ▲ACE 마이크
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엔
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 등 총 4종
으로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중남미 스타트업 성장 위한 투자·기술 지원방안 모색”

중기부-외교부, 미래협력포럼
오영주 장관 “정부, 민간협력 위한
기업 네트워킹·기술교류 계기 마련”
“자원·농산물 중심 경제협력 분야
첨단산업·디지털화 등으로 확대”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와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은 외교부가 200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로, 올해엔 중기부가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를 가진 중남미와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 디지털 역량을 가진 한국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선 오 장관, 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남미에선 페루의 하비에르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외교 장관, 온두라스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 장관, 칠레 아우로라 윌리엄스 광업 부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정부 중심의 한·중남미 협력 관계를 민간 분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한국 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민간 협력을 위해 양 지역 기업들간 밀접한 네트워킹과 기술교류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중기부는 한·중남미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와 기술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그동안 물적 지원 중심

으로 이뤄진 경제협력 방식도 기술 및 인적교류, 개발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기부는 콜롬비아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국과 FTA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간 교역 규모는 FTA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도 15배 이상 늘었다.

오 장관은 “한국과 중남미는 양측의

환경을 고려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협력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원, 농산물, 제조업 등 교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지금까지의 경제협력 분야를 앞으로는 첨단산업, 디지털화,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장관은 이날 인사말 끝을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는 뜻의 중남미 격언인 ‘신 빠리사, 페로 신 빠우사(Sin prisa pero sin pausa)’로 마무리해 양측의 견고한 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미래협력포럼에선 한국외대 김원호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저녁엔 인근의 웨스트진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베 미래포럼에 참석’ 만찬을 주최하며 양국간 교류를 추가로 도모했다.

오 장관은 주베트남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베미래포럼은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지난 2012년 제1차 포럼이 열린 이후 올해가 여섯 번째다.

오 장관은 만찬사에서 “급격한 디지털·AI 전환 시대에 양국의 미래세대가 첨단기술분야에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테크 분야 스타트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귀뚜라미 ‘바닥 환기’ 테니스 코트 오픈

고척동에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
공기조화·냉난방 시스템 등 적용
연면적 1만㎡, 국제규격 코트 13면



최첨단 환기 발전 냉난방 시스템 집약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 내부 모습. /귀뚜라미

귀뚜라미의 50년 냉난방 공기조화 기술력을 총망라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테니스 코트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귀뚜라미그룹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첨단 환기(공기조화), 열병합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연면적 1만㎡(3000여 평) 규모에 국제 규격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복층 구조 실내 코트 8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2017년 문을 연 기존 테니스코트 실내 3면과 실외 2면을 더해 총 13면으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바닥 환기 시스템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 ▲거꾸로 ECO 콘덴싱 중형 캐스케이드 ▲센추리 무급유 터보냉동기 등 귀뚜라미그룹이 보유한 최첨단 환기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어 사계절 쾌

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국내 최초로 바닥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테니스공에서 떨어지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네트 아래와 벽면 바닥에 설치된 흡입구에서 신속하게 배출하고, 테니스장 상단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속 공급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넉넉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보유해

여유롭게 경기 관람과 휴식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최상의 접근성으로 고척 스카이드 야구장, 축구장, 풋살 경기장 등 인접 시설과 연계해 지역 문화·생활체육의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귀뚜라미는 체계적인 테니스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를 맡았던 김영환 감독을 중심으로 6명의 전문 강사를 영입해 ‘청소년 테니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국내 테니스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의 인기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사계절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기존 크린 테니스 코트를 대폭 확장해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X판토스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 저감 목표(2050 NET Zero)를 제시했다.

LX판토스는 특히 회사 소유·통제 범위 밖에서의 배출(Scope3)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해 공개하기 위해서다.

10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UNGC(UN Global Compact)의 4대 부문(인권·노동·환경·반부패) 10대 원칙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 등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한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LX판토스 맹운주 경영지원담당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변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판토스는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임에도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NGC 가입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B- 획득 ▲EcoVadis Committed Badge 획득 ▲물류센터 지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착즙기, 日 홈쇼핑서 6100대 ‘완판’

홈쇼핑 채널 QVC서 라방 7회 진행

휴롬 착즙기가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휴롬은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 QVC에서 휴롬 착즙기 H310(사진) 6000여대가 큰 호응을 얻으며 완판됐다고 10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 QVC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홈쇼핑 채널 중 하나로 판매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QVC는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쇼핑 시장이 큰 일본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채널이다.



휴롬은 지난달 28일 일본 QVC 채널 내 TSV(24시간 특집 방송)에 선정돼 라이브 방송 7회를 진행하는 동안 착즙기 H310 화이트, 블랙, 스카이블루, 사쿠라핑크 등 전 컬러 6100대가 모두 매진됐다.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나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MOU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시장 추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기보는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와 ‘중소벤처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평가데이터·NICE평가정보

등 6개 유관기관과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 발굴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수요발굴 및 추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김치 담그고, 떡도 만들고”... 농촌마을 40곳서 이색 체험

농식품부, '소규모 농촌체험 지원' 개발·시범운영 등 사업비 9억 투입 강원 양구·전남 나주 등 40곳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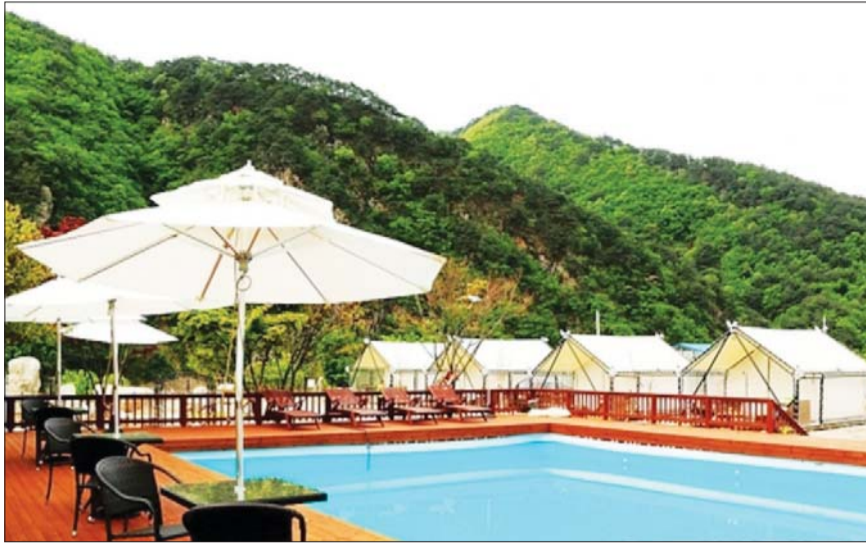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단위 등의 소규모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막걸리 만들기를 비롯해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을 체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근 관광 추세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올여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형으로는 식도락 미식탐험형과 워케이션형, 탄소중립 및 친환경형, 다세대 가족형, 반려동물형 등이 있다.

이들 40곳 중 강원 양구에 위치한 국토정중앙배꼽체험휴양마을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마켓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경기 여주의 백



강원 인제에 자리한 한 글램핑장.

/뉴스시스·한국관광공사

화원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단위의 비숙박 피크닉 체험을, 충남 아산의 강당골마을은 ▲트리 클라이밍 체험 후 식도락 여행을 각각 추진 중이다.

또 전남 나주의 반남권역은 ▲자미산 활만들고 마한 탐험체험 개발을, 경북 문경 궁터마을은 ▲콩으로 만드는 고기, 식빵, 파스타 체험을 추진한다. 이 밖에 경남 김해 한림알로이 ▲원에, 미용, 미식이 어우러지는 체험을 비롯해 대전 계족산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치유농장 체험, 제주 서귀포 하례1리의 ▲서걸서와 및 야간탐방 체험,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의 ▲피크닉과 함께하는 아로마 족욕 체험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업 목적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 단위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국비 800만 원이다.

개발 가능한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트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와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한다. 올해 연말에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장관상 1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해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성능 검증

환경과학원-유럽우주국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럽 우주국(ESA)과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소재 유럽우주국 지구관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한 협약이다.

양측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과 유럽 우주국이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 트로포미(TROPOMI)의 자료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또 위성자료 검증을 위한 지상 자료 교환 및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유럽우주국은 전 지구의 육상, 해양 및 대기질 관측을 위해 2017년에 발사된 저궤도 환경위성인 트로포미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트로포미 위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세계 세 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 센티넬

-4호 위성을 이용해 전 지구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및 이동에 관한 관측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활용 분야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독일우주국(DLR), 막스플랑크화학연구소(MPIC)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년 10월 유럽우주국에서 주관한 페가소스(PEGASOS) 활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페가소스 활동은 위성 간 상호 비교 및 지상 관측을 통한 검증 연구를 가리킨다.

김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연구기관인 유럽우주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위성 기반의 연구 범위를 확장해 북반구 대기질에 관한 공동 연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기환경 및 위성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농업·질병 등 R&D 민간전문가 모집

농식품부, 'R&D 공동기획단' 운영 투자영역 재편·국제협력 확대 등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마련한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할 공동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동물 및 질병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각각 총괄 관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은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비롯해 투자영역 재편, 국제협력 확대, 혁신·도전형 연구 확대 등이다.

공개 모집하는 민간 분과위원장은



전북 전주 소재 농촌진흥청.

/뉴스시스

정부,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과위원들과 함께 ▲중장기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부·청 연구개발사업 조정 ▲신규사업·과제 발굴 및 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분야 연구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을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모집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1~26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모집 일정 및 지원서 접수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탄저병 등에 강한 수박 12개 품종 개발

농촌청, 원예특작과학원서 평가회

농촌진흥청이 10일 탄저병과 흰가루병 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육종용 수박 1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회를 오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육종용 수박은 민간이나 종묘 회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품종을 만들 때 활용하는 수박을 말한다. 우수한 육종용 수박이 다양해질수록 소비자와 농업 현장에서 원하는 수박을 만들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번에 개발한 육종용 수박은 국내 외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가운데 농진청이 5년간 병 저항성 평가와 교배 등 육종 소재화를 통해 유전적 안정성과 고유 특성이 잘 유지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FE 69' 계통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병인 흰가루병 발생지수가 1점대로 낮다. 속살이 빨간색을 띠는 등 야생 수박보다 식용 수박 특성이 있어 육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줄기가 갈라지고 부패하는 덩굴쥔김병 발생지수가 1점대로 낮은 'FE 49' 계통은 당도가 10브릭스(Brix)로 비교적 높다. 품질이 우수한 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이들 수박 외에도 탄저병 저항성 수박 1점, 흰가루병 저항성 수박 6점, 덩굴쥔김병 저항성 수박 3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1억 부과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 계열사가 동일한 2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

(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케이비랩에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한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보 “中企, 기술사업화 등 성장 지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MOU “답사이언스 성장 생태계 조성”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7일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COMPA)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 중소기업

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이루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COMPA는 신보에 과학기술 R&D 성공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과학기술 R&D 수요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각 기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이 R&D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R&D기업을 적극 지원해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답사이언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h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45개국 모인 '부산콘텐츠마켓'... 2.2억 달러 거래 성과

660개 업체, 2148명 참여하며 성료
코스타리카 등과 미디어 교류협력
H '미스터트롯 저팬' 협약 진행
드라마 성공 이끈 제작자 시상식



부산 OTT시리즈 어워드.

부산시는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 2024)'이 45개국 660개 업체 2148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콘텐츠마켓이 역대 최고 거래 실적을 달성하면서 막을 내렸다. 올해 거래실적은 지난해 대비 5409만 달러가 증가한 총 2억2158만 달러(약 324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마켓 개최 이래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산콘텐츠마켓에서는 올해 '영화·영상산업 글로벌 부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산 출신의 배우 안보현을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 신시장 개척을 위해 코스타리카 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에 이어 세르비아의 영화제 NSFF,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OTTera, Inc.와 상호교류 협약을 맺는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미디어 교류 협력을 이뤘다.

최고 시청률 35.7%로 종편 역사를 새로 쓰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끌어낸 '미스터트롯'의 일본판인 '미스터트롯 저팬' 제작을 위해 TV조선과 일본 NTT도코모 스튜디오&라이브가 '부산콘텐츠마켓(BCM) 투자협약식'을 통한 포맷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스터트롯 3' 출연자들이 일본 현지를 비롯해 본격적인 세계(글로벌)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과 국내외 유수의 투자사들이 함께 총 5

건 500억원 이상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콘텐츠를 유통하고 바이어와 셀러가 중심이 되는 부산콘텐츠마켓만의 특성을 살려 드라마의 성공을 이끈 제작자, 작가 등 주요 인물들을 격려한 의미 있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총괄제작자상은 에이치비오(HBO)의 오리지널 7부작 시리즈 드라마 '동조자'의 총괄 제작자 '니브 피치먼(Niv Fichman)'이 수상했다. 작가상은 최근 '눈물의 여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작가임을 입증한 '박지은' 작가가 선정됐다. 제작사상은 'KT 스튜디오지니'의 메디컬드라마 작품상,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 '메디컬드라마 특별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의학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5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이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행한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안전사절단 교육 통해 역량 강화

경북도는 지난 7일 김천대학교 그레이스홀에서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44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흥기현 김천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로 진행됐다. 내용은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돼 안전사절단의 역량을 강화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경주시

안강읍 시외버스정류장 착공

경북 경주시는 안강읍에 공영 시외버스정류장을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산대리 일원에 건물을 짓고 대기실, 기사 쉼터, 버스차고지 등을 마련한다.

현재 시외버스는 포항에서 영천, 하양, 동대구 구간 노선이 하루 10회, 포항 기계 노선이 하루 19회 운행되고 있다.

기존 터미널은 지난 2017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 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 간이정류장만 이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주민은 물론 옥산서원, 흥덕왕릉 등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주시는 공영 시외버스정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주(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밀양시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밀양시는 지난 8, 9일 이틀간 밀양시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8회 밀양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밀양시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개인전 36홀 저타 경쟁 경기로 치러졌다. 8일에는 남자부, 9일에는 여자부 경기가 오전 18홀, 오후 18홀씩 각각 진행돼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완도군이 "제2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 대회" 참가해 특산물 수출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

완도군,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 등 오스트리아서 1000만여 달러 협약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 참가
특산물 수출상담회서 190만弗 체결

완도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한 「제2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 참가해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과 '특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는 장한상수상자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김점배 장한상수상자협의회장,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장보고한상역대 수상자, 완도군 수출 업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장보고한상 수상자협의회와 1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완도읍 일원에 조성될 '국제휴양·치유단지'에는 골프 테마파크, 리조트·호텔, 치유정원, 뷰티 센터,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특산물 수출 상담회'를 열어 55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에 190만 달러 상당의 전복과 해조류, 해초면 등 특산품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제 2차 관광진흥기금' 지원

총 36억 규모... 용자·보조사업 진행

경북도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관광진흥기금 지원(용자·보조)을 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의 1차 지원사업 추진 결과 용자 사업에는 신청한 11개의 사업체 중 4곳이 선정돼 40억원, 보조사업에는 125개 사업체 중 49곳이 선정돼 20억원이 지원된다.

2차 지원사업은 1차와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원으로 용자사업에는 20억원, 보조사업에는 16억원이 배정됐다.

용자 사업은 0.8%의 금리로 관광

숙박업 등 관광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 여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하면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용자 사업은 사업체가 있는 시군 관광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조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발표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진주시,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총력

기본계획 총사업비 6.6兆

경남 진주시는 최근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가 확정된 가운데 지역의 정·재계,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경남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10월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 올 4월에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과 조기착공을 건의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는 9개월 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사업적정성 및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 총사업비 4조9438억원에서 6조6460억원으로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속행하고,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연말까지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

산림청, 5개 지표로 평가 진행

울산시는 산림분야 주요 시책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5개 지표 주요 산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산림분야 합동평가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올해 평가에서 ▲지속적

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 5개 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가 됐다.

특히 매년 낮게 평가됐던 산불방지 분야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온다”... 빙과업계, 주가·실적 ‘방긋’

롯데월드푸드 목표주가 22만원으로
스크류바·쥬스바 제로 칼로리 출시
‘제로’ 아이스크림 라인업도 확대

빙그레 목표주가 8.3만원→10만원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 2종 선보



제로 아이스크림 라인업(왼쪽)과 쥬스바, 스크류바 /롯데월드푸드

올해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빙과업계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빙과류 양대 산맥인 롯데월드푸드와 빙그레는 대표 제품 외에 ‘제로’ 라인업을 늘리는가 하면, 해외 수출도 늘리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빙그레는 전 거래일 대비 8800원 오른 9만8900원에 거래됐으며, 롯데월드푸드는 전일 증가에서 1만200원 오른 16만8800원에 거래됐다. 양사 모두 장 초반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빙그레와 롯데월드푸드의 주가 상승은 올해 예고된 폭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빙그레와 롯데월드푸드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롯데월드푸드가 신제품 출시 등으로 국내외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렸다. IBK투자증권은 빙그레의 올해 목표 주가를 기존 8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교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구와 울산 등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빙과업계는 올 여름을 매출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롯데월드푸드는 지난 4월 제로 칼로리·저당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스크류

바’와 ‘쥬스바’를 제로 칼로리로 출시했다. 출시 1개월 만에 약 720만 개가 팔리면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이어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늘렸다. ‘제로 트리플 초콜릿 바’ ‘제로 쿠키앤크림 바와 흡타입 2종’ ‘제로 딥 초콜릿 파인트’ ‘제로 쿠키앤크림 파인트’ 등을 선보였다.

빙그레도 이에 질세라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인 ‘파워캡 블루아이스

미국으로 수출되는 메로나 /빙그레

제로’ ‘콜라포 커피 제로슈거’를 시장에 내놨다.

빙그레는 해외 사업도 순항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스크림의 약 70%가 빙그레 제품이다. 빙그레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국가에 현지 법인을 두고 이를 거점 삼아 캐나다, 북미, 동남아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출 국가 수는 30개에 달한다. 대표 수출 제품인 ‘메로나’의 경우 국가별로 선호하는 맛을 반영, 현지화 전략을 펼쳐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426억6100만원, 2022년에는 593억7400만원, 지난해 688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더위 소식에 빙과업계의 시장 점유율 늘리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제로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해외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로 인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SSG닷컴 16일까지 스포츠 썬세일

SSG닷컴이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여름 스포츠웨어 및 용품을 할인 판매하는 ‘스포츠 썬세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SSG닷컴은 다양한 워터 스포츠를 즐길 시 착용하기 좋은 의류와 용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 배럴 래쉬가드, 나이키 스웜 팬츠, 크룩스 샌들, 아레나 수영 및 수영모자, 킥실버 수영복 등이 있으며 정가가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매일 2개 상품을 핫딜가에 한정 판매하는 타임딜도 있다. 10일 뉴발란스 530 운동화 타임딜을 시작으로 나이키, 파인캐디, 타이틀리스트 등 인기 스포츠 의류·용품 합리적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썬라이브를 통한 스포츠 브랜드 라이브 방송도 총 3회 편성했다. 데카트론, 이타카, 크레모아의 그늘막, 텐트, 랜턴 등 인기 캠핑용품을 특별 혜택에 선보이며 페어라이어의 여름 신상 골프웨어는 썬닷컴에서만 단독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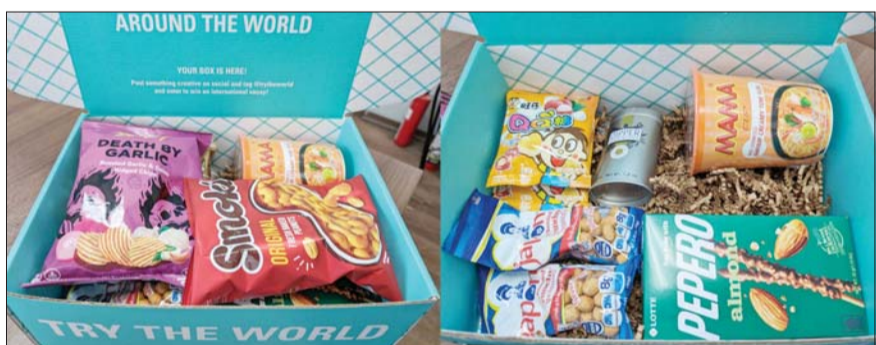
롯데월드푸드, 美 스낵 구독플랫폼으로 ‘빼빼로’ 알린다

트라이 더 월드 월평균 구독자 1만명
‘아몬드 빼빼로’ 포함... 마케팅 강화

롯데월드푸드가 스낵 구독 서비스 ‘트라이 더 월드’에 ‘빼빼로’를 소개하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트라이 더 월드’는 세계의 과자들을 큐레이션해 보내주는 미국의 과자 구독 서비스로 월 평균 구독자 1만명에 달한다.

‘트라이 더 월드’ 구독 서비스는 매월 8~9종의 세계 과자를 모아 정기배송 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공동 마케팅으로 ‘아몬드 빼빼로’가 포함됐다. 달콤한 초콜릿에 원물의 식감이 느껴지는 아몬드 분태로 현지 선호도가 높아 선정됐다. 아몬드 빼빼로는 5월 구독자 꾸러미에 구성되어 미국



롯데월드푸드가 스낵 구독 서비스 ‘트라이 더 월드’에 ‘빼빼로’를 소개하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롯데월드푸드

각지의 과자 팬들에게 전달됐다.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트라이 더 월드’ 공식 SNS채널에서는 ‘Play together, Share PEPE RO(빼빼로를 나누며 함께 즐겨요)’라는 주제로 빼빼로를 소개하는 콘텐츠

를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빼빼로와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공개했다. 빼빼로와 ‘트라이 더 월드’는 SNS 이벤트를 통해 아몬드 빼빼로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6월 중에는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빼빼로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월드푸드는 이번 빼빼로 공동마케팅을 시작으로 ‘트라이 더 월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를 미국에 선보이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한 롯데 빼빼로는 2020년부터 국내와 해외에 같은 슬로건을 내세워 글로벌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첫 번째 해외 생산 기지로 인도를 낙점하고 인도 현지 법인인 롯데 인디아의 하리아나 공장에 빼빼로 현지 생산을 위한 21억 루피(약 330억원)의 신규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CJ프레시웨이 어린이·청소년 간식류 연평균 매출 31% 성장

CJ프레시웨이는 어린이·청소년 급식 경로에 유통하는 간식류 상품 매출이 성장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PB 상품과 경쟁력 있는 식품 브랜드와의 유통 협업 전략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다. 식자재 고급화 트렌드와 보육 시스템 강화에 따른 식수 증가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어린이·청소년 간식류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1%씩 성장했다. 올해 1~4월 누적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상품군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후식 메뉴 또는 간식으로 제공된다.

매출 상승 폭이 큰 상품군은 주스(연평균 50%), 빵(38%), 떡(17%) 등이다. 주스류는 어린이 급식 경로에 유통하는 자체 브랜드 ‘아이누리’의 과채주스 상품군의 판매량이 높았다. 100ml 용량의 어린이용 음료로 지난해 480만여 팩이 팔렸다.

최근에는 이색 포장재를 입힌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누리는 ‘마시는 모여라 아채친구들(사진)’ 패키지 전면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적용했다. 학교급식 특화 브랜드 ‘튼튼스쿨’도 과일주스 패키지에 신학기, 사과데이 등 다양한 컨셉트의 디자인을 적용해 상품 주목도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

bhc, 포장박스 ‘친환경’ 도입... ESG 강화 BBQ 청계광장점 ‘비즈니스 모임’ 핫플로

이달 말까지 모든 매장 전환 완료

종합의식기업 bhc그룹이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치킨은 치킨 박스와 사이드 메뉴 포장 박스, 트레이까지 모두 친환경 종이 포장재 ‘그린실드’로 교체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장 별 순차 도입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매장 내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은 한국제지와 협업해 포장재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치킨 박스를 제작했다. 이번

에 bhc치킨이 도입한 ‘그린실드’는 국내

제지 전문기업 한국제지가 개발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로, 플라스틱(PE/PP) 코팅을 하지 않아 땅 속에서 3개월 안에 94.9% 생분해되며,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닌 미국과 유럽에서 재활용 인증(UL ECVF 2485) 및 생분해성 인증(OK Compost Industrial)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국제산림관리협회(FSC), 친환경표지 인증(EL606) 등을 취득해 자연 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한 식품 포장재로 검증받았다. 특히 bhc치킨을 상징하는 노란색 배경 디자인을 과감하게 빼 불필요한 잉크 사용을 최소화한 점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이색 분위기에 전체 대관 늘어

광화문 청계천변에 위치한 ‘BBQ 청계광장점’이 비즈니스 대관의 핫플로 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3월 오픈한 ‘BBQ 청계광장점’에 중요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곳에서의 대관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BBQ 청계광장점은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유럽풍 대형 테라스와 루프탑, 이국적인 인테리어에 ‘치맥’뿐 아니라 ‘피맥’, 샐러드에 와인 등 다양한 조합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단체로 방문

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회식 문화가 점차 간소해지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음식과 술을 적당히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단체 회식의 장소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대형 테라스, 루프탑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전체 대관 형태의 고객사 미팅을 위한 비즈니스 모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방송사, 금융기관,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비즈니스 행사용 모임을 위해 앞 다퉈 대관에 나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올영세일, 중소·신진 브랜드 맹활약... 10대·외인 매출 급증

**CJ올리브영 K-뷰티 트렌드 제시
중소 브랜드 상품 매출 상위 차지
“유통망 등 성장 디딤돌 역할”**

CJ올리브영이 중소 브랜드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린 ‘올영세일’에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상품들이 매출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CJ올리브영은 ‘라운드랩’, ‘닥터지’, ‘메디힐’, ‘토리든’ 등이 일평균 1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은 올영세일은 일 년에 네 번 열리는 올리브영 정기 세일 행사다.

올리브영이 지난 2023년에 진행한 네 번의 올영세일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해 누적 결제 건수는 2490만에 이르고, 누적 방문회원수는 온·오프라인 통합 60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CJ올리브영의 올영세일이 뷰티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K뷰티’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광주 타운을 찾은 고객이 K뷰티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기업 브랜드들이 해당 행사를 통해 올리는 매출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올리브영에 입점한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랩’의 경우, 2023년에는 올리브영에서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라운드랩의 CJ올리브영 입점 후 1년과 2023년 1년간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그 성장세는 무려 1000%에 이른다. 이와 관련, 라운드랩도 올리브영 입점을 계기로 매출 성장을 이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브랜드 대표 제품인 ‘독도 토너’가 ‘올리브영 클린뷰티’로 선정되는 등 라운드랩은 올리브영을 통해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했다. 라운드랩이 지난 202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포 맨’ 제품군의 경우, 올리브영의 ‘독도 토너’를 사는 남성 고객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올리브영과 함께 성장한 대표 중소기업 브랜드로 꼽히는 ‘닥터지’도 베스 트셀러인 크림에서 선케어, 에센스, 클렌징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메디힐’은 마스크팩으로,

‘토리든’은 가볍고 수분 가득한 제형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각각 브랜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토리든 관계자는 “브랜드 입장에서 올영세일은 큰 매출을 기록하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라며 “올영세일을 통해 고객 구매 데이터, 소비성향 등을 파악해 향후 판매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올영세일에서는 올리브영의 핵심 소비자층이 20~30대 여성을 넘어 10대, 외국인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은 이번 세일 기간 매장이나 온라인몰을 찾은 10대 회원 고객수는 직전 세일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같은 기간 전국 매장을 찾은 외국인 매출 또한 78%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림으로써 매출 성장, 유통망 확보 등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애경산업 루나 멜팅 포뮬라 립 팔레트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원하는 색을 조합해 나에게 딱 맞는 입술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루나가 ‘멜팅 포뮬라 립 팔레트’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루나의 ‘멜팅 포뮬라 립 팔레트’는 6가지 색상으로 ▲투명한 ‘스파클 샴페인’ ▲연한 복숭아 색상 ‘크림 포인트’ ▲맑은 복숭아 색상 ‘멜티드 피치’ ▲차가운 느낌의 빨강 ‘체커 매트’ ▲톤을 낮춘 붉은 벽돌색 ‘진저 슈슈’ ▲생기 있는 ‘애플리쿠투스’ 등이 있다.

이번 신제품은 도톰한 수분 광택을 표현하는 ‘케어밤’, 입술에 생기를 더하는 ‘틴팅밤’, 촉촉하면서도 선명한 입술을 연출하는 ‘글로시밤’ 등 세 가지의 제형으로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366

글로벌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맨트’가 국내 대표 토종 향 브랜드로서 제품군 확장에 힘쓰고 있다.



에이피알은 포맨트가 브랜드 대표 제품 ‘시그니처 퍼퓸’의 신제품 ‘코튼 366 (사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코튼 366’은 포맨트가 판타지를 주제로 새롭게 선보이는 향수다. 숫자 366은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366일을 뜻한다.

특히 코튼 366은 알데하이드 시트러스 향의 톱노트, 스위트피와 자스민이 조화를 이루는 미들노트, 스위트 캐시미어 잔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아울러 용기 하단부터 은은하게 빛나는 오묘한 보라색으로 신비로운 느낌과 고급미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썸머 ‘아세페’ 구경하세요”

〈아모레 세일 페스타〉

**아모레퍼시픽 역대급 혜택 마련
‘썸머 버라이어티 쇼’ 테마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역대급 혜택을 갖춘 뷰티 행사를 마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3일까지 자사 공식 쇼핑몰인 아모레몰에서 ‘2024 썸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모레 세일 페스타(아세페)’는 연중 최대 규모로 상·하반기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썸머 버라이어티 쇼’를 주제로 꾸며졌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20여 가지 아세페 한정판을 비롯해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키 체인을 담은 럭셔리 기획 세트 등을 선보인다. 트위터, 벅스 버니 등 루나톤즈 캐릭터로 구성된 바캉스 아이템 굿즈는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농심물과 함께하는 ‘릴레이 브랜드 데이’에서는 올해의 농



아모레퍼시픽은 23일까지 ‘2024 썸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

심 인기 상품을 담은 ‘썸썸바사 버라이어티 팩’과 여름밤 시원한 맥주에 어울리는 간식을 꾸린 ‘농맥 버라이어티 팩’을 라이브 방송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롯데홈쇼핑, 내달 ‘벨리곰 매치랜드’ 출시

영국서 1차 출시... 9월 국내 론칭

롯데홈쇼핑은 자체 캐릭터 벨리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캐릭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170만 팬덤을 보유한 벨리곰은 유튜브 활동(2018~2022년)으로 인지도를 쌓은 후 2022년 초대형 공공전시를 계기로 팝업, 굿즈 판매 등 오프라인(2022~2024년)으로 활동을 확대하며 국내 대표 캐릭터로 성장했다.

‘벨리곰 매치랜드’는 벨리곰 SNS 구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30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퍼즐게임과 벨리곰의 세계관, 캐릭터 디자인이 반영된 모바일 게임이다.



벨리곰 매치랜드 /롯데홈쇼핑

영된 모바일 게임이다.

올해 7월 영국에서 1차 게임 출시를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잇달아 선보인 이후 9월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 향후 일본, 유럽, 북미 등으로 론칭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에스티팜-인테론, TNFR 저해제 공동연구

선택적 저해 저분자 물질 도출 계획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이 해외 바이오텍과 협업해 신약 개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미국 보스턴 소재 바이오텍 기업 인테론과 종양괴사인자 수용체(TNFR) 저해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2024년 6월부터 2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종양괴사인자 수용체(TNFR)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저분자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 방식에서 차별화

된 특징을 갖췄다.

종양괴사인자(TNF)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TNFR1과 TNFR2를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저분자 물질을 개발하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약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티팜 측의 설명이다.

인테론은 지난 2020년 허준렬 하버드 의대 교수와 글로리아 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공동창업한 바이오텍 기업이다. 신경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 파이프라인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청하 기자

지그재그, ‘9번째 생일파티’ 프로모션

특가, 쿠폰 등 참여형 이벤트 강화

카카오택시이 운영하는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서비스 출시 9주년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지그재그 9번째 생일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가, 쿠폰,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재미 요소를 강화했으며, 동시에 고객이 할인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마

련됐다. 국내 대표 쇼핑몰부터 패션, 뷰티, 라이프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메인 이벤트는 매일 9,999,999마일 리지를 응모자끼리 나눠 갖는 이벤트다. 또한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9개의 선물 상자 속에 숨어있는 랜덤 마일리지를 찾는 이벤트도 있다.

이외에도 ▲9시간 타임세일 ▲99일 ▲직진배송 썸베스트, ▲라이브 특가 등 특가 코너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동아제약 비타그란 비타민C 3종 기프트 세트

동아제약이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에서 다양한 제형과 맛을 갖춘 제품을 선보인다.

동아제약은 ‘비타그란 비타민C 3종 기프트 세트’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각각 다른 3종의 비타민C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비타민C 분말 레몬맛, 츄어블 라즈베리맛, 구미젤리 복숭아맛을 취향대로 골라먹고, 비타민C 하루 권장량 섭취도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동아제약 온라인 공식몰인 ‘디몰’과 카카오택시 선물하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톡톡 튀는 오렌지 색상자와 ‘뭘 원할지 몰라서 다~준비 했어’ 라는 메시지로 구성된 선물용 쇼퍼백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2024.06.19(수)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 행사명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 주제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00~17:00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후원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 사전접수 2024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GS건설-서울시교육청, '즐거운 돌봄교실' 만든다
GS건설은 10일 서울 중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GS건설 허운홍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외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 허운홍 대표(가운데)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왼쪽 첫번째)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롯데, '올 패밀리데이' 개최... 700여명 한자리
롯데는 계열사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4 롯데 올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임직원들은 자녀에게 본인의 일터인 롯데를 소개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



우아한형제들, '장보기오픈런' 성료... 2000명 질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2024 장보기오픈런(장보기오픈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장보기오픈런에는 2000여명이 참가해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성내천 일대 5km를 걸거나 달렸다. /우아한형제들



유카로오토모빌-울산 HD FC, 4년 연속 스폰서십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은 한국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 FC와 4년 연속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 회장(왼쪽)과 울산 HD FC 김광국 대표이사가 1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스폰서십 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카로오토모빌

승실대 '에너지정책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승실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정책융합대학원'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승실대는 이번 사업에 처음으로 단독선정됐으며, 5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 8개월간 46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승실대는 사업을 통해 경제학과와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 5개 학과가 연합해 에너지정책기술융합학과를 설립한다. /이현진 기자 lhj@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노년이 되면 노인복지관 옆에 살아야겠어.”
오래간만에 만난 옛 친구가 불쑥 던진 말이다. 구수를 넘긴 친구의 아버지가 혼자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키고 있다며 한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친구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노인복지관을 확장한 것에서 그 비결을 찾았다. 독거노인들이 매일 같이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건강 비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도시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풍부하고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더 높은 임금과 다양한

췌! 우리 도시는 공부 중

직업 선택지가 도시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다.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쇼핑시설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다. 박물관, 극장, 콘서트홀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이렇게 도시에 사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교육 인프라와 학습기회의 접근성이다.
우리나라엔 226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형태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교육부가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평생학습도시의 숫자만 198개(2024년 기준)에 이르니 전국의 87.6%가 평생학습도시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

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으로 정의된다.
서울 은평구는 도시의 '숨은고수'를 발굴한 지 20년이 넘었다.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시민들(숨은고수)이 형식, 내용,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열린 배움터(숨은고수교실)를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에 가면 '세로골목'이 한창 열공 중이다.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세로골목)를 매개로 5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이면 시니어를 위한 한글교실부터 힐링플라워 클래스까지 수많은 교실이 만들어진다.

평생학습도시는 '동시에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기도 하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방방곡곡 공용공간들을 '학습등대'로 재구조화했다. 지역 내에만 120개의 학습등대가 있어 1분 내에 등교가 가능하다. 수원시의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누구나학교'는 지하철역으로 연결된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이 원하는 학습을 신청하면, 강사가 대덕구 어디든 찾아가는 무료 학습 배달 서비스를 한다.
학습이 자장면처럼 배달된다고 도시의 특색을 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췌! 공부 중'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현대차, 산불피해지 산림 복원 추진

트리플래닛 등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사회 위한 노력 지속"
현대자동차가 정부 기관 및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사회 공헌 사업에 나선다.
현대차는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최두하 현대차 경영전략사업부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트리플래닛과 '지속가능한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

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숲을 신규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숲은 현대차가 고객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 친환경 CSV 활동인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 중심의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글로벌 CSV 이니셔티브 '현대 컨티뉴' 아래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류얼 에스오일 사장,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 CEO,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장진수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이 '해경영웅지킴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스오일

에스오일, 해경영웅 3.2억 후원

'해경영웅지킴이' 활동 지속 "튼튼한 후원자로 함께 할 것"
에스오일이 해양경찰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다.
에스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본사에서 해경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3억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원금은 공상해경 치료비, 순직 해경유자녀 학자금, 해경영웅 시상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

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에스오일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오일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도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이후 해경 관련 프로그램별 후원금 전달식과 해경영웅 시상식을 지속해서 개최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그룹, 달성습지 관광 활성화 나서

제 10회 생물다양성 축제 후원
효성그룹이 효성티앤씨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대구의 달성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효성은 대구시 달성군에서 개최된 '제 10회 달성습지 생물다양성 축제'를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은 올해 초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습지를 생물다양성 보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환경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환경축제는 달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 릴레이 투어, 천체관측, 보물찾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그려진 양말이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은 앞으로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김봉식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이호영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형

부음

▲이준일씨 별세, 이준호(팜젠사이언스 마케팅본부장)씨 부친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우영희(향년 87세)씨 별세, 전대홍씨 부인상, 전창원(빙그레 대표이사)·전양숙씨 모친상, 김정우씨 장모상, 정유숙

씨 시모상 = 9일,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02-2227-7572
▲손말연씨 별세, 임장렬·상호·해정·선숙씨 모친상, 임지훈씨(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차장)·조모상, 백영미씨(뉴시스 신성장산업부 기자)·시조모상 = 1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5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53-961-4444
▲김두진씨 별세, 김형준(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숙희·숙찬·민정·연희씨 부친상, 윤도희(에코프로 고문)·박태진(사업)·안병주(기아자동차)씨 장인상, 김희선씨 시부상 = 9일,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2호, 발인 11일 오전 7시 10분, 054-634-4444



오징어가 살아있다



오징어 올리브 버거

매우맛
HOT

감마맛
GARLIC

단품 ₩ 5,500
세트 ₩ 7,600



오징어 올리브 비프버거

매우맛
HOT

감마맛
GARLIC

단품 ₩ 5,700
세트 ₩ 7,800



Alive

오징어 올리브
Burger

지하철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부산 집 근처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요금 구간 별로 다르다고 했다. 직접 표를 끊기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1구간에 얼마, 2구간에 얼마라고 하는데 구간과 정거장의 개념조차 없었으니, 택시와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한 정거장 지나질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을 타러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집 근처 역에서부터 약 10개의 정거장까지가 1구간이었고 그다음 역부터 종점까지가 2구간이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요금에 빠르고 특히, 약속 시간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은 정말로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필자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보다 열 배는 복잡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러 의미로 그 말은 맞았다. 한국의 지하철 회사는 도시철도공사 한 곳인

데 동경에는 여러 개의 지하철 회사가 있었고 각각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환승도 불편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요금 시스템도 있었다. 필자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었다. 특히 동경은 지하철노선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일본 지하철 회사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권의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정기권은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해서 구매하는데 지정된 기간에 그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 이 정기권은 매우 감사한 존재이다. 우선 집 근처 역에서부터 학교 근처 역까지 통학정기권을 끊으면 당연히 매일 티켓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교통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므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벗어

나 더 먼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기권의 마지막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요금으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역시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회사 복지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 하나도 교통비 지급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회사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아 교통비 지급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닌데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 회사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교통비를 회사 형편에 맞게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교통비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직원이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살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직원은 적은 교통비를 받고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 직원은 더 많은 교통비를 받게 된다. 심지어 신칸센을 타고 타지방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도 정기권 금액으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iM뱅크, 아쉬운 새출발



기지 수집 안승진 (금융부)

‘지방소멸 및 수도권 인구 과밀’ 정지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과제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에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목적이 일자리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지방이 쇠퇴하면서 거점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도맡아온 지방은행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이익은 이미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이익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의 직원당 생산성은 지방은행

의 2.3배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역할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돌파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시중은행 진출에 따른 ‘iM뱅크’로의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는 한편 영업 구역 제한, 시중은행보다 비싼 조달 비용 등 지방은행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이달 초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의 초기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방일 뿐이었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판 상품들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편성돼 접포 이용 고객의 접근이 어려웠고, 고객유치를 위해

사명 변경에 발맞춰 선보인 ‘연 20% 초단기 적금’은 인터넷은행들이 지난해 유행 시켰던 ‘초단기 적금’의 재현에 불과했다. 고객의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는 높지만 기간과 액수제한이 있어서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수십 년간 축적된 지방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를 공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출범 직후 행보에서는 그 포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출범 초 영업망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iM뱅크’에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눈에 띄는 혁신과 신선함이 부족하던 지적을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궁금해진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5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남의 티끌보다는 내 잘못도 생각. 48년생 역경에 처해도 위축되지 않으면 해결이 나온다. 6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72년생 피나 웅졸한 고집 피우지 않도록. 84년생 새는 날기 시작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 소** 3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49년생 친질이 오히려 부질없는 참견 될 수 있다. 61년생 배우자에게 믿음으로 대하자. 73년생 원활한 인간관계가 인생사 사는 비법. 85년생 오랫동안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다.
- 호랑이** 38년생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 협동. 50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니 보답이 온다. 62년생 정신없을 때 상사나 나를 돕는다. 74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해결책이 있다. 86년생 인생사 살다 보면 운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 토끼** 39년생 좁은 길은 갈 때는 한발 물러서서 양보. 51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63년생 사냥함도 여유를 가져야 미움 안 산다. 75년생 운전하며 옆 차와 다투지 마라. 87년생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늘상 공존.
- 말** 4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2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진다. 64년생 조심스러우면 천지의 신들도 도움을 주게 된다. 76년생 두번 오지 않을 인생. 88년생 재산과 임무를 맡기려니 시련을 극복하려는 형체가 없다.
- 뱀** 41년생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개에게도 복종하게 되니 재산 잘 지키도록. 53년생 곁양 지덕이 있으면 주변부터 화평하다. 65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없다. 77년생 인생은 각자 가는 것. 89년생 하늘의 뜻은 예측하기 어렵다.
- 양** 42년생 금전 문제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66년생 산행 가서 새로운 이성을 주의. 78년생 산다는 것은 남보다도 우선 자신과 싸움이기도 하다. 90년생 순조로운 하루이며 주사의 자산증식 소식이다.
- 닭** 43년생 소금을 넣어도 너무 짜지 않는 모습. 55년생 길은 가까운 데 있으니 조직에서 신의를 지켜라. 67년생 계엄 무책임은 내가 물리쳐야 할 요소이다. 79년생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보라. 91년생 꿀을 넣어도 너무 달지 않아야 하고.
- 원숭이** 44년생 반려견이 고마운 날. 56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68년생 결혼하지 않을 이성과 가까이 하다 보면 미래의 자식 복을 상실하게 된다. 80년생 취미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92년생 삼재(三災)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라 했다.
- 닭** 45년생 부동산 매수가 순조롭다. 57년생 부족한 상사를 비난하지 않도록. 69년생 할 일에 대해 순서를 매겨보라. 81년생 무슨 일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살펴보라. 93년생 가지고 있는 돈에 너무 인색하면 중분지나 말년에 빈털터리로.
- 개** 46년생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8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고 봐서 알겠는가. 70년생 내가 상대에게 중상모략이 될 수 있으니 말을 가려서. 82년생 회사에서 개인 전화는 사절해야. 94년생 식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며 하심을 하자.
- 돼지** 47년생 태어날 때부터 이상적인 가정은 없으니 함날 것. 59년생 자녀가 한 발짝씩 원하는 수준에 오른다. 71년생 질투를 없애고 공평심을 찾으면 기회가 온다. 83년생 현재의 경제는 극복된다. 95년생 재물의 기초는 스스로 닦고 모아야 할 터.

김상회의四季

경국지색과 당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한 국가가 쇠퇴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는 경국지색이다.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인. 하나라 때의 말희(末喜), 주나라를 망가지게 했다는 포사, 은나라 주왕(紂王)의 비(妃)였던 달기, 당나라 현종 때의 양귀비(楊貴妃)를 떠올릴 것이다. 그중 포사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40년 동안 잉태되어 있었다가 태어났다는 출생 자체가 기이하고 죽음 또한 베일에 싸여있다. 웃지 않는 미녀로 소문난 그녀를 웃게 만들기 위해 유왕(幽王)은 애가 뒀다.

귀하다귀한 비단을 실수로 찢은 것을 보고 포사가 깔깔대고 웃자 수시로 비단을 찢기도 했다. 시간이 가자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도 지겨워해서 유왕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까 하던 차에 그 유명한 ‘봉화’ 시리즈를 탄생시킨다. 도망하던 유왕과 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태자는 적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고 포사는 포로로 잡혔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래서 구미호의 화신으로서 죽지 않고 여우로 변해 도망했다는 얘기까지 있다. 여우의 이미지는 고대로부터 아름답고 섬뜩하고 꼬리가 아홉 개 달린 낭랑 특유의 단골 소재인 것도 포사가 효시인 것 같다.

중국의 고대 3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왕들이 총애하던 여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주석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리라.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기보다는 당파싸움과 같은 권력자들의 명분을 내세운 기득권 추구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곧 종강,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법적 마지노선 8월 초"

교육부, 이번 주 '복귀 대책' 발표
총장들과 교육 여건 개선 등 논의
교수 총원 등 의대 환경 개선 마련
정부, '동맹휴학' 신청 승인 불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하순 대학 1학기 수업 종강을 앞두고도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의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로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의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월 시작된 의대생 수업 거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의대생 중 현재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 관계자 전언이다.

지난달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의대생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며 "총장들이 협의체

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흥원화 경북대 총장을 주축으로 일부 의대 보유 대학 총장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결성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의대생 복

귀 방안과 교육 여건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대책 발표는) 대학 요청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라며 "일단 이번 주까지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의대생이 유급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시기로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한은 남아있지만,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가급적 6월 안으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의 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급격한 정원 증원으로 수업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의대 교육 질 담보 방안을 제시해 복귀 계기를 만들겠다는 복안

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총원, 강의공간 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이 담겼다. 자세한 방안은 조만간 제시하고, 9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수업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학가에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실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대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법정 다툼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집단 유급이나 휴학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I·바이오·첨단산업 육성 기술개발 본격화

서울시, 미래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양재·홍릉·마곡 등 인프라 구축 박차

서울시가 미래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양재·홍릉·마곡·G밸리 지역을 첨단 기술 핵심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135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 창업 육성 전문 기관인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AI·R&D 옹거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울을 글로벌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AI 기술 적용 융·복합 교육으로 타 산업 기술 전환 촉진 ▲육·해·공군과 오픈이노베이션-테스트베드 프로그램 시행 ▲차별화된 재직자 역량 교육 실시 및 AI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과 협력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AI 기업 스케일업에 나선다.

AI 기반 타 산업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바이오 전문가와 AI·핀테크 전문가를 각 50명씩 양성하고, 방산 분야 기술 수요와 AI 기업을 매칭,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시는 머신러닝 전문가 등 최고급 인재 120명과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70명도 육성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 시청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

사무·주차공간 확보 차원

고양시는 최근 시청 소속 4개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시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의 재배치"라고 밝혔다.

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다.

이 중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며, 나머지 팀원(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

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금년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로, 별도의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 가능하며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취준생 모여라"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모집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4시까지다. 희망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시민 가운데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간으로 중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 학생 미술작품 '메타버스'에 전시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1일 미술 중점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온라인으로 개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METASSEM) 내 콘텐츠 형태로 개발됐다. 온라인 형태로 개관한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는 관내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1센터(융합예술교육) ▲2센터-테

크&에코아트 ▲3센터(동아리활동 기반)와 차별화해 미술교육 중점 센터로 운영된다. 11일 개관일에는 초·중·고교 학생 미술 수업 결과물이 60점 공개되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학생 및 교원 작품이 매일 추가로 게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추후 관내 학교 학생 작품 공모전을 시행해 더 많은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학생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작품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향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6월 11일 (화)
음력 : 5월 6일

수도권 날씨
21 ~ 31 °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9/31, 동두천 19/31, 가평 18/32, 파주 18/29, 서울 21/31, 양평 20/31, 인천 19/26, 수원 21/30, 용인 21/30, 평택 19/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푸틴, 이르면 이달 중 북한·베트남 방문 /사진 뉴시스
▲ 트럼프, 10일 보호관찰국과 화상 면담

▲ 뉴질랜드 럭슨 총리, 中·日 총리와 연쇄회담
▲ 日, 남북 오물풍선 확성기 긴장고조에 "경계 감시 전력"



▲ 한전, 인니와 신기술 협력 강화... 암모니아 혼소·HVDC 등 논의
▲ 예멘 후티 반군, 아덴만서 선박 두 척 공격 /사진 뉴시스



역대급 폭염에
빙과업계
주가·실적 방긋
나



Life

올영세일
중소·신진브랜드
맹활약
L2



모두 함께 누리는 미래 위해... “기술 나눠 격차 줄여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가 ESG 활동을 통해 IT 산업에 전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권리의 보호 ▲포용의 문화 ▲생태계 강화 ▲환경친화적 접근 총 4가지 지향점을 세우고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에 대한 중점 관리에서 더 나아가 대내외 생태계 발전과 건전성까지 도모한다.

대표적인 ESG 경영 프로그램에는 중견·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화이트햇 투게더’가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달 24일까지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에 참가할 기업과 대학생들을 모집한다.

디지털기술 활용한 격차 해소 앞장 민·관·학 협력 ‘화이트햇 투게더’ 개최 중견·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 지원

화이트햇 투게더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파인더랩과 함께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장려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도 지원한다. 이번 시즌3에서는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참가자들을 모집해 취약점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혜택도 강화했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우 정보보호 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기업에 비해 보안 역량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민·관·학 협력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투게더를 통해 정보보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최근 한 통신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O2O 서비스의 확산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마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생활 편의 영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26.3%까지 떨어지는데 75세 이상에 이르면 16.4%까지 하락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뜻으로 글을 자유롭게



- 1 지난해 12월 진행한 2기 화이트햇 투게더 결과공유회에서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이사(중앙)와 참가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2 CJ올리브네트웍스 직원이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지난해 8곳 사회복지관에서 40여 차례 교육을 시행했다.
- 3 CJ올리브네트웍스 직원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 4 SW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인 ‘CJ SW 창의캠프’에 참가한 직원과 학생이 웹캠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게 읽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은행 등 일상 생활 영역까지 키오스크가 확산하면서 노년층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지난해에만 임직원 봉사자 400명이 상반기 3곳, 하반기 5곳 등 8곳의 노인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총 40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해 지역도 확대했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 인원을 전년보다 2배 늘려 총 400여 명의 참가자에게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CJ SW 창의캠프’에 ESG를 주제로 하는 코딩 교육을 커리큘럼에 도입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키오스크 등 시니어 디지털교육 확대 지역 학생들 위한 코딩교육 재능기부 에너지 효율성 관리로 온실가스 감축

CJ SW 창의캠프는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SW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으로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SG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영역도 전방위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DC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의 IT 장비 및 서버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방치·미사용 중인 장비 및 서버를 선별, 전원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노후 인프라 교체를 진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협력사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3대 영역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재무적 지원 ▲경쟁력 강화 ▲소통·커뮤니케이션 확대 세 가지다. 재무적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과 대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 협력사의 재무 문제를 돕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 지원과 기술 자료 임치를 제공한다. 동반성장 협약사 정기 간담회도 진행한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우리는 포용적이고 윤리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LG, 1위 수성 도전... KIA는 선두 탈환 시도 /사진 뉴시스
▲아디다스, 손흥민·차범근과 함께 ‘널 믿어’ 캠페인

▲이강인, 포선수시장 가치 2위 손흥민은 9위
▲NBA 보스턴, 결승서 댈러스 105-98 격파...안방 2연승



▲임성재, PGA 메모리얼 공동 8위...세플러 시즌 5승 /사진 뉴시스
▲김민재 없는 수비라인 중국전 ‘최적 조합’ 공개 임박